



야구대표팀 중심 이정후... 막중한 책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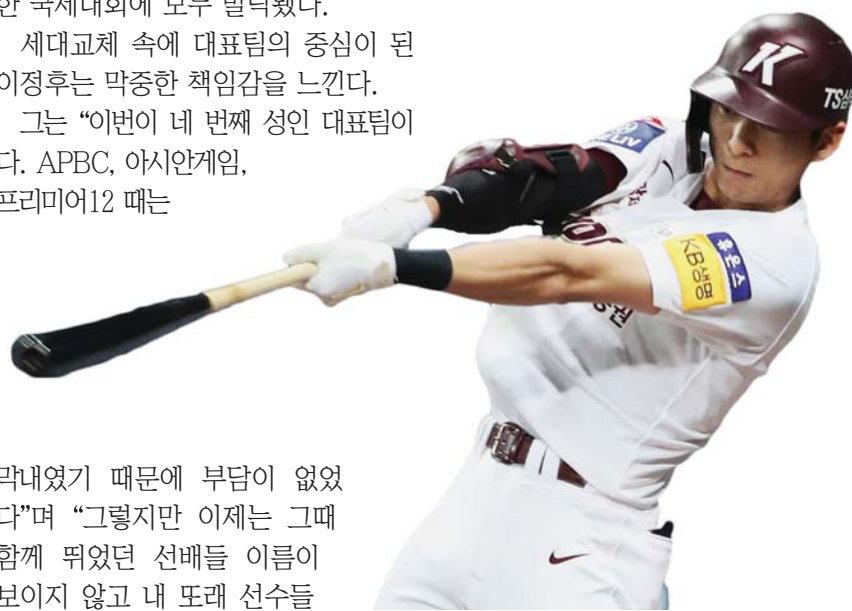
“도쿄올림픽 계기로 야구 인기 살아났으면 좋겠다” 가장 상대하고 싶은 투수... 일본 셋업맨 요시노부

한국을 대표하는 타자로 성장한 이정후(23·키움·사진)가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상대하고 싶은 투수는 누굴까. 메이저리그 무대를 누볐던 일본인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라쿠텐 골든이글스)를 지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에겐선 의외의 대답이 나왔다. 이정후는 “2년 전 프리미어12 결승전 때 3구 삼진을 당했던 투수가 있다. 공이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9년 11월 1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12 결승전에서 일본에 3-5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악축의 8회’에 이정후가 선두타자로 나서 기대를 모았지만 일본의 셋업맨 야마모토 요시노부(오릭스 버펄로스)에게 3구 삼진으로 물러났다.

이정후는 “구질도 다 기억한다. 내가 알기로는 포크볼-커브-포크볼(실제로는 커브-포크볼-포크볼)에 당했다”며 “다시 만나면 이기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정후와 동갑인 야마모토는 우완 정통파 투수로 178cm의 단신에도 불구하고 직구, 컷패스트볼, 커브, 스플리터가 모두 A급 구종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9월 29일 세이부 라이온스 전에서는 8이닝 동안 삼진을 14개 잡아낸 정도로 탈삼진 능력이 뛰어나다. 일본에서도 도쿄올림픽 한일전 선발투수 1순위로 거론될 정도로 ‘사부라이 저팬’의 실질적인 에이스다. 이정후는 “2년이 지났는데, 나도 그렇고 그 선수(야마모토)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정후는 어느덧 ‘태극마크’ 단골이자 대표팀의 주축이 됐다. 2017년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을 시작으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019년 프리미어 12에 이어 도쿄올림픽까지 굵직한 국제대회에 모두 발탁됐다. 세대교체 속에 대표팀의 중심이 된 이정후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는 “이번이 네 번째 성인 대표팀이다. APBC, 아시안게임, 프리미어12 때는

이 보인다. 이제는 형들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정후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야구 인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막내였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다”며 “그렇지만 이제는 그들과 함께 뛰었던 선배들이 보이지 않고 내 또래 선수들

메이저리그 150년 역사에 최초 기록

휴스턴 호세 알투베, 끝내기 또 다음날 리드오프 홈런

미국프로야구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호세 알투베(31)가 메이저리그 150년 역사에 최초의 기록을 만들어냈다. 알투베는 1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1회말 알투베가 타석에 들어서자 중계 방송사는 전날 알투베의 끝내기 역전 만루홈런 영상을 틀었다. 그 영상이 끝나자마자 알투베는 텍사스 선발 조던 라일스를 상대로 리드오프 홈런을 터트렸다. 이 홈런으로 알투베는 메이저리그 최초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스포츠 통계 업체인 스태츠(STATS)에 따르면 끝내기 홈런을 친 다음 경기에서 리드오프 홈런을 때려낸 것은 알투베가 역대 처음이다. 알투베는 전날 텍사스전에서 2-3으로 뒤진 10회말 역전 끝내기 만루홈런을 터트렸다. 여세를 몰아 다음 날 첫 타석에서 선두타자 홈런을 기록했다. 휴스턴 외야수 마일스 스트로는 “나는 놀라지 않았다. 알투베는 내가 지금까지 본 선수 중에서 최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알투베는 올 시즌 56경기에서 타율 0.294에 15홈런, 36타점, OPS 0.874를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서귀포시청 육상팀 또 한번 메달 추가

세단뛰기 황미영 ‘금’ 포환던지기 이수정 ‘은’

서귀포시청 육상팀이 올 들어 세번째로 전국대회에 참가해 금메달과 은메달 1개씩을 추가 획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육상연맹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북 익산에서

열린 제50회 전국종합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서귀포시청 황미영이 여일반부 세단뛰기에 참가해 12m53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17일 밝혔다. 여일반부 포환던지기 이수정은 건디선 난조로 자신의 목표기록에도 못 미치면서 16m12로 아쉽게 은메달을 차지했다. 오은지기자



지난 13일 제36회 제주태권도협회장기 전도 태권도대회가 온라인 품새 대회로 치러졌다.

제36회 제주태권도협회장기 대회 개최

온라인 품새대회로 치러져

제36회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장기 전도 태권도대회가 지난 13일 제주도체육회관 태권도훈련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당초 지난 12~13일 서귀포 다목적 공천포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제주지역 사회

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겨루기 부문을 취소하고 온라인 품새 대회로 치러졌다. 온라인 품새부문에는 개인전 421명, 단체전은 총 71팀이 참가했으며, 초등부 우승은 한라태권도5관이, 중등부 우승과 통합부 우승은 한라태권도 분관이 차지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NBA 첫 여성 감독 등장할까?

뉴올리언스, 웨더스푼 거론 1988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미국프로농구(NBA) 사상 최초의 여성 감독이 등장할 것인가. NBA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는 17일 “스텐 밴 건디(62·미국)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20-2021시즌을 앞두고 뉴올리언스 지휘봉을 잡은 밴 건디 감독은 한 시즌만 치르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미국 야후스포츠는 뉴올리언스의 새 감독 후보로 LA 레이커스의 제이슨 키드 코치, 자크 본 브루클린 네츠 코치 등을 거론하며 테리사 웨더스푼(56·미국) 뉴올리언스 코치로 감독으로 승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웨더스푼 코치는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뉴욕 리버티, LA 스파르스 등에서 선수로 뛰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2019년 네이시미스 메모리얼 농구 명예의 전당에 오른 웨더스푼 코치는 2008년부터 모교인 루이지애나 공대 감독을 역임했고 2019년부터 NBA 뉴올리언스 코칭스태프에 합류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베키 해먼

(44·미국) 코치도 NBA 여성 감독 1호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는 인물이다. 해먼 코치는 2018년 밀워키, 지난해 인디애나 감독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올랜도의 차이 사령탑 물망에도 올라 있다. NBA에서 아직 여성 감독은 나온 적이 없으며 다만 해먼 코치가 2015년과 2016년, 2019년에 샌안토니오의 서머리그 경기 감독을 맡은 바 있다. 비시즌 기간에 열리는 서머리그는 NBA 1, 2년차와 NBA 진출을 노리는 선수들이 임시로 팀을 구성해 치르는 대회다. 또 2017년에는 시범경기 때 감독 역할을 수행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그레그 포포비치 감독이 경기 중 퇴장당하자 정규리그 경기 임시로 감독 대행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편 워싱턴 워저즈도 스킷 브룩스 감독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새 사령탑을 찾기로 했다. 이로써 NBA에서는 2020-2021시즌 종료 이후 30개 구단 중 6개 팀이 감독 교체를 단행했다. 이날 감독 교체 계획을 발표한 뉴올리언스와 워싱턴 외에 보스턴, 인디애나, 포틀랜드, 올랜도의 감독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이현중의 드리블 17일(한국시간) 필리핀에서 열린 2021 FIBA 아시아컵 예선 A조 4차전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과 인도네시아(88위)와의 경기에서 이현중이 드리블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 104-81로 승리하며 2021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태양광 지원사업 상시 예비접수중

지금 전화로 상담하십시오!

🏠 단독 주택

자부담금 230만원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 공사비 50%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 별도상담
- 타운하우스 등 단체신청시 특별할인

🏢 상가 건물

자부담금 : 공사비의 45~50%

- 사무실/식당/펜션/공장/학원/축산시설 등
- 설치용량 200kW까지 지원가능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 50~55% 보조금 지원

2021년도 상반기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고 성원해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원사업 수혜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